

■ 도내 공공실내체육시설 8개월여만 개방 첫 날

# 준비부족 반쪽 개방... 이용편의 뒷전

### 이용자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후 시설 입장 사전 예약제·인원 제한 운영방식에 혼선 빚기도 시민들 "다시오니 즐거워"... 방역당국은 초긴장

"오래도록 기다렸던 터라 개방하니 매우 반가워요" "사전 전화 예약제인 줄 몰라 헛걸음을 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2월 24일부터 8개월 간 운영이 중단됐던 제주도내 공공 실내 체육시설이 4일 속속 개방됐다. 모처럼 문을 연 체육시설들은 방역에 한층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시민들은 개방이 반가우면서도 사전 전화 예약제·인원 제한 등 낯선 운영 방식에 다소 혼선을 빚는 모습도 목격됐다.

다만 지난 2일 제주도가 4일 시설 개방을 결정했지만 제주도체육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당일 문을 열지 못해 게이트볼·배드민턴·스쿼시 등 제주도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4일 오전 9시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국민체육센터엔 운동을 하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용객들은 발열체크를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뒤 체력단련장·수영장 등 부대 시설로 향했다.

시설 내에선 공공 실내 체육시설 운영방안에 담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침들이 눈에 띄었다. 체력단련장 내 헬스시설들엔 거리두기를 위해 '사용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며 수영장에도 라인당 인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또 9시부터 2시간 동안 개방한 뒤 공백을

두고 다시 2시간 개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용객들의 혼선도 잇따랐다. 이용객들은 시설 별 인원 제한, 이용전일 전화 예약 등 운영 방식에 불편함을 토로했다.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 이날 제주국민체육센터를 찾았다는 김모(47·여)씨는 "어제 하루종일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아 오늘 아침부터 찾아온 것인데, 현장 접수는 되지 않고 전화 접수만 돼서 돌아가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린 사람이 많은데, 혼선을 줄일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상운 제주국민체육센터 팀장은 "어제가 센터 휴관일이었는데 오늘부터 개방이 시작돼 전일 예약이 다소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며 "오늘이 첫날이라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만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 시민체육단련장에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 이곳 역시 부분 개방 방침으로 9시부터 2시간마다 체력단련장 15명, 수영장 16명씩 인원 제한을 뒀다.

이날 수영장을 찾은 A(56·여)씨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4일 문을 연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개방을 오래 기다린 만큼 다시 오니 반갑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체육회가 운영 중인 제주도체육회관은 이날 개방하지 않았다. 제주도체육회 측은 방역 인력 배치, 승인,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

유로 이번 주 중엔 개방이 어려우며 이르면 다음 주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개방이 결정돼서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대혜기자

## 올해 첫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17억 징수

### 제주시 "징수율 85%"

제주시는 올해 첫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20억100만원 중 17억100만원을 거둬 84.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고 4일 밝혔다. 징수액은 제주국제공항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대학교병원(7900만원), 롯데·신라면세점(7100만원) 등의 순이다.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곳은 당초 부과액보다 3%를 더 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시설물의 교통혼잡 유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 무사통과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고...

### 할로윈데이 전후 점검 방역수칙 위반 등 적발

제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할로윈 데이(10월 31일)를 맞아 유통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별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2곳을 적발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지 시정 조치는 행정처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 업주로부터 영업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기입 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특별 점검에서 방역 수칙과 무관하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업체와 영업허가증을 미비한 업소 등 4곳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시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감귤 따고 먹고 추억을 남기세요"

### 도농기원 16일 체험행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제주농업생태원 금물과원에서 '맛있는 감귤따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금물과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조성된 감귤원이다. 이곳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감귤 등 다양한 감귤 품종이 전시된 감귤품종전시관을 비롯해 녹차원, 미로공원도 함께 조성돼 체험도 진행할 수 있다.

받은 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수확용 가위, 봉지 등을 이용해 직접 감귤을 만져보고 수확해 맛볼 수 있으며, 수확한 감귤 중 1kg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올해 행사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2020 온라인 제주감귤박람회 연계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문의 농촌지도팀 760-7811-13. 이태윤기자

## 노형 정촌공영주차장 준공 10일 개방... 3층규모 116면

제주시 노형 정촌 북측 공영주차장이 준공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노형 정촌 북측 공영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116면의 주차면수를 갖춰 3층 규모로 조성됐다. >> 사진 제주시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내부



에 재활용도움센터도 설치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12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 12월 이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 "드림타워 중수 환천 방류도, 환경연합 질의 무응답"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중수 환천 방류에 대해 지난 10월 21일 제주도에 공개질의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송악산원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하수 발생량의 40%까지 줄일 수 있는 절수기기의 명칭과 재원, 수량과

드림타워 중수를 환천에 방류할 경우 방류의 수질, 지하수로 함양 비율에 대해 공개 질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상하수도본부의 무응답으로 원희룡 도정이 겉으로 거창한 환경선언을 하면서도 드림타워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엔 모든 특혜를 동원해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환경수용력을 초과한 난개발 행정이 하수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강대혜기자

시행 주식회사 열우

시공 주식회사 포엠

Nobhill HOUSE JEONGSIL

# 의리인의 선택은? "노브힐하우스"

## 노브힐 하우스 정실 1차, 2차

민으로, 한라수목원이 근접해 있어 친환경 웰빙 주거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숲세권에 연동인프라, 도서관, 아트센터,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문화생활의 최적지!  
 연복로와 애조로를 끼고 있어 제주시내 어느 곳이든 접근성이 좋습니다!

**전 세대 남향배치 / 4 Bay 구조 / 천정고 2.4m / 세대당 2대 주차**  
 외부 테라스 / 이면창호 / 스마트홈 네트워크  
 삼성 시스템에어컨 4대, 오븐레인지, 김치냉장고 빌트인 / 주방 펜트리 수납장, 스테인리스 아일랜드 싱크

125m<sup>2</sup>(구38평형) 32세대 분양!! 모델하우스 11월 6일 OPEN!

**문의** 010.2650.0576  
010.3690.2828

노브힐이 아껴둔 자리!